

SK에너지, 지속가능경영 우수 평가

생산성본부, 다우존스와 공동선정 ... LG생활건강은 개인용품 부문

SK에너지를 포함한 국내기업 41사가 한국형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금융정보기업 다우존스(Dow Jones), 스위스 자산관리기업 SAM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윤리, 환경에 대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형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한국>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처음 구성된 <DJSI 한국>에는 25개 산업군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자동차, SK에너지, 아시아나항공, 웅진케미칼, STX엔진 등 모두 41사가 선정됐다.

국내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아시아 선진기업과 비교했을 때 82.8%, 세계적 기업과 비교했을 때 91.4%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개인용품 산업의 LG생활건강, 건설 산업의 대림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인 95%로 나타났고 운수·항공 운송 분야가 60%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정보공개 부문에서 평가결과가 낮았다. 환경부문의 정보공개는 69%, 사회부문의 정보공개는 72% 수준에 그쳤다.

1999년 다우존스와 SAM이 만든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기업을 단순히 재무적 정보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해 지속가능경영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월드 지수와 아·태 지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가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 단위 지수인 <DJSI 한국>이 생겼다.

한국생산성본부 최동규 회장은 “DJSI 한국 지수는 국내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0>